

협상 교착... 與 “민생법 먼저 처리하자”

선거법 협상 진전 없어 패트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한국당 “사과가 먼저”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출구 없는 답답한 연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뿐 아니라 '4+1'(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도 교착에 빠지면서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예산 부수법안과 비정점 민생법안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맞물려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3일 본회의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무관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석파유제 도입 문제를 놓고 민주

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도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화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비정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도 계속 시사하

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 대표제도 도입 무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도 선거법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협조할 생각이 생기겠는가"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문화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를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원 포인트 본회의의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인물 영입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22일 국회 정문관에서 제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들과 함께 입장 기자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김경우 의원, 김영문 전 청장, 윤호중 사무총장, 강준석, 김경욱 전 차관, 윤후덕·김성환 의원. /연합뉴스

‘청문정국’ 개막

추미에 법무 후보 30일 ... 정세균 총리 후보 다음달 초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청문정국'의 막이 오르고 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돌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각 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지고,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각 당은 특위 인선을 이날까지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명단은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면 정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통합과 화합', '민생과 경제'라는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총리 인사청문과 국회 동의를 원활하게 이뤄져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자당 묶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특위 간사로는 김상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나머지 위원은 이날 중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 계획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통화해

서 "국회의장을 지낸 뒤 행정부 소속인 국무총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소속 야당들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정 후보자의 총리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이 호남 출신이지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제기된 바 있다. '4+1' 공조'가 이뤄질 것인지에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장병완 의원, 5·18 특별법 제정 공로 5월단체 감사패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합양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로로 5월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은 2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인권·평화한마당' 행사를 갖고, 장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위해 조사위원 자격논란을 없애도록 자



유한국당에 개정안 제출을 제안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게도 하지만 마음 한 편이 아프다"며 "40년간 가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1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최경환 의원은 201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밀한 자료 분



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호평을 받았다.

최경환 의원이 특히 관심 있게 다룬 분야는 문화예술분야와 콘텐츠분야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2018년 공모사업 중에 콘텐츠분야의 79%, 문화예술분야의 72%가 수도권에 편중 지원됐고, 광주 2~3%, 전남 1% 등 지방은 고작 1~3%를 지원받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준호 예비후보, 광주교도소 발견 유골 경위 수사 촉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관련 행방불명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40여기가 발견됐다"면서 "무연고 유골 역시 5·18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교도소 영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매장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이 40여기의 유골이 암매장된 경위와 암매장한 관련자들을 찾는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또 "정밀감식은 5·18단체가 추천하는 법의학자와 5.18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한 점 의혹 없는 정밀감식을 통해 5·18진상규명과 암매장의 진실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남재 예비후보, 다음달 4일 서구문화센터서 출판기념회

이남재 총리의 정계복귀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이남재 예비후보가 내년 1월 4일 오후 3시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이남재의 정면돌파'라는 책을 선보인다.

'이남재의 정면돌파'에는 이남재 총리의 전남지사 재임시절 정무특보, KBC 광주방송 파다부다 시사평론가, 광주 CBS 시사매거진 진행자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했던 이 예비후보의 다양한 경험 등이 담겨있다.

출판기념회에는 송갑석, 이개호, 서삼석, 손금주, 김경진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기



동민, 이훈, 박찬대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의 삶의 변화는 정치에 관심"이라며 "정치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과 맞닿아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통합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